

격음의 이중 표기와 음성적 특징

신 성 철(한국학중앙연구원)

1. 머리말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쏟테(몽산:10b)’, ‘갑똥디니(월석23:98a)’, ‘놋뵈츨(속삼孝:3a)’ 등이나, ‘딛흔(飜老上:12a)’ 등과 같은 표기 용례가 나타난다. 격음을 선행 음절의 받침에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를 하나 덧붙인 형태, 즉 격음 ‘ㄷ, ㅈ, ㅊ’이 각각 ‘ㄷ+ㄷ’, ‘ㄷ+ㅈ’, ‘ㄷ+ㅊ’으로 표기하거나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와 ‘ㅎ’이 연결된 형태, 즉 격음 ‘ㅈ’이 ‘ㄷ+ㅎ’로 표기한 용례인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특히 15세기 국어의 정서법은 음소적 원리를, 즉 각 음소를 충실히 표기하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이기문 1972a). 격음도 어두이든 어중이든 음절초라면 해당 문자가 그대로 표기되어 나타나야 하지만 15세기 국어 문헌에서는 ‘쏟테(몽산:10b)’, ‘갑똥디니(월석23:98a)’ 등이 발견되며, 16세기 문헌에서는 ‘딛흔(飜老上:12a)’ 등이 각각 나타나고 있다.

보통 근대국어로 올수록 이러한 격음의 표기 형태가 점차 늘어나는 표기의 확산이 전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음절 이하의 초성에 나타나는 격음을 해당 문자(ㄷ, ㅈ, ㅊ, ㅈ) 그대로 표기하는 방법(이하 유형(1)이라 칭한다.)은 중세국어의 음소적 표기법을 계승한 것이고, 선행 음절의 받침에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를 하나 덧붙인 형태(ㄷ(ㄷ)+ㄷ, ㅈ+ㅈ, ㅊ(ㅈ)+ㄷ, ㅈ+ㅈ)로 표기(이

하 유형(2)이라 칭한다.)되거나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와 ‘ㅎ’이 연결된 형태(ㅅ+ㅎ, ㄱ+ㅎ, ㅌ+ㅎ, ㄷ+ㅎ)로 나타나는 표기 형태(이하 유형(3)이라 칭한다.)는 근대국어어를 대표하는 표기인 것이다.¹⁾ 달리 말하면 중세국어에서는 격음의 대부분이 대응 문자 그대로 표기되는 유형(1)이라면, 근대국어에서는 격음이 이중으로 표기되는 유형(2)과 유형(3)이 점차 많아져, 유형(2)은 17세기에, 유형(3)은 18세기 후반에 일반화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격음의 이중 표기²⁾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1)	유형(2)	유형(3)
[ㅅ]	ㅅ	ㅅ(ㅅ)+ㅅ	ㅅ+ㅎ
[ㄱ]	ㄱ	ㄱ+ㄱ	ㄱ+ㅎ
[ㅌ]	ㅌ	ㅌ(ㅌ)+ㅌ	ㅌ(ㅌ)+ㅎ
[ㄷ]	ㄷ	ㄷ+ㄷ	ㄷ+ㅎ

본고에서는 격음의 이중 표기가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나타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격음의 이중 표기가 시대 순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표기의 가능성에 대한 출발선은 동일하고, 단지 표기 유형을 선택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표기는 음운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음성형 하나에 표기형 셋인 1:3의 대응 관계 속에서 어떤 음운 현상을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그리고 각각의 대응 관계가 어떻게 순차적으로 인식되었는지, 그 음성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이 논문은 국어문화회 2008학년도 춘계 전국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마무리를 온전히 못한 원고를 읽고, 토론을 준비한 전북대의 여운지 선생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1) 이음절 이하의 격음 표기 유형은 박충구(1980:15~16), 홍윤표(1986:128~131), 오종갑(1988), 김중진(1999) 등 참고.
- 2) 격음자 ‘ㅅ, ㄱ, ㅌ, ㄷ’가 격음 /ㅅ/, /ㄱ/, /ㅌ/, /ㄷ/에 대응함에도 불구하고, 격음자를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를 선행 음절의 받침으로 덧붙인 형태’와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와 ‘ㅎ’이 연결된 형태’와 같이 두 개의 자음자로 격음 /ㅅ/, /ㄱ/, /ㅌ/, /ㄷ/를 표기하는, 즉 이중으로 표기된 경우를 격음의 이중 표기라 명칭하고, 기존의 소위 중첩 표기 중에서 격음 부분만을 독립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2. 이중 표기

2.1. 표기의 변화

격음의 이중 표기를 포함한 소위 중철 표기를 중세국어의 연철 표기에서 근대국어의 분철 표기로 넘어가는 과도적인 표기로 설명한다. 그러나 중세국어에서 격음을 선행 음절의 받침에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를 하나 덧붙인 형태나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와 ‘ㅎ’이 연결된 형태로 표기된 용례가 발견된다. 15세기 문헌에서는 동일 계열을 자음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내려 적는 용례가 확인된다.

- (1) 깃츠로(表, 구방下:16b), 긋추려(止, 구방下:96a)³⁾, 박기니(구급 목록:6a)⁴⁾, 끝테(몽산:10b), 갑푼디니(월석23:98a)

16세기 문헌에서는 격음의 이중 표기를 보이는 용례는 문헌에 따라, 그리고 격음 종류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여 나타난다. 『翻譯老乞大』(1517)에서는 ‘ㄷ’은 ‘딤픈, 접폐라, 앓피, 굶프다, 보습피고’ 등의 유형(2)와 ‘딤흔(稿), 좃답히라’ 등이 유형(3)이 함께 나타난다.⁵⁾ 그러나 ‘ㄷ’은 유형(2)가 유일하게 ‘단티’로만 나타나며, ‘ㅈ’과 ‘ㅋ’은 이중 표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연철 표기로만 나타난다.⁶⁾

- 3) 『救急方諺解』는 초간본(1466)은 전하지 않고, 16세기 중엽의 중간본만 전한다. 그러나 이 중간본은 초간본의 복각본(復刻本)이므로 15세기 국어 문헌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4) 『救急簡易方諺解』는 초간본(1486)은 전하지 않고, 지방에서 복각한 중간본만 전한다. 그러나 이들은 임진왜란 이전의 간본이므로 중세국어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 5) 유형(3)의 발생 원인으로 ‘딤(稿)’을 ‘ㅎ’말음 체언인 ‘딤ㅎ’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딤ㅎ’이라면 ‘딤ㅎ+과’의 결합에서 ‘딤과’로 나타나야 하는데, ‘딤과’(翻譯老上, 11b, 6회)로만 나타나고 있다. ‘ㅎ’말음 체언인 ‘하늘ㅎ’은 ‘과’와의 결합에서 ‘하늘과’(七大, 6a)로 나타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딤’은 ‘ㅎ’말음 체언이 아니다. 특히 어간말에서 ‘폐쇄음+ㅎ’의 연쇄는 유기음으로 바뀌는 특성 때문에(홍윤표 1994:235, 이진호 2003:174), 폐쇄음의 ‘ㅎ’말음 체언은 존재하지 않는다.
- 6) ‘ㅋ’ 용례는 ‘울타키니와(翻譯老上, 5a), 도코나(翻譯老上, 12a), 아너키늘(翻譯老上, 19a), 노코(翻譯老上, 22b)’ 등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ㅎ+ㄱ’이 축약된 용례로, 유형(2)나 유형(3)으로 표기되지 않는다.

- (2) 1) 이피(<읇-(吟)+-이, 飜老上,3a), 슬피거늘(飜老上,29b), 저프리오(<정-(恐)+-브-, 飜老上,31a), 기피움(飜老上,34a), 기프니도(飜老上,34a), 골핀(飜老上,41b), 알프로(飜老上,59a) // 디피로다(飜老上:19a), 디플(飜老上:19a), 디플다가(飜老上:20a)
- 2) 입피(飜老上,3a), 앓푸로(飜老上,10a), 보습피고(飜老上,26a), 곱프다(飜老上,39b), 접페라(飜老上,58a) // 딛핀(飜老上:18a, 3회), 좃딛피사(飜老上:18a), 벳딛피면(飜老上:18a), 딛피(飜老上:19b), 딛프란(飜老上:24b)
- 3) 딛흔(飜老上:12a), 좃딛히라(飜老上:18a)
- (3) 1) 어디브터셔(<블+-어, 飜老上,17b), 도티(<돌+의, 飜老上,20b), 겨티(<겘+의, 飜老上,26a), 그테(<글+에, 飜老上,68b), 브티디(<블+-히+-디, 飜老上,49b), 전년ㄴ티(<글+-히, 飜老上,54b)
- 2) 달티(<달(따로)+히, 飜老上,43a)
- (4) 1) 조차가(<쫘+-아, 飜老上,43a), 나치오(<낫(個)+이+오, 飜老上,23b), ㄴ치(<낫(顔)+이, 飜老上,41a)
- 2) 없음.

『飜譯朴通事』(1517)에서는 유형(2)가 각각 ‘곶트니(飜朴,30b)’, ‘잡포믈(飜朴,34b)’, ‘딛키여(飜朴,42a)’처럼 한 개씩 확인된다. 격음 ‘ㅈ’의 유형(2)는 『飜譯老乞大』와 같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동일한 시기에 간행된, 그리고 역학서라는 동류의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두 문헌에 나타나는 격음의 이중 표기는 각기 달리 나타난다. 즉 『飜譯老乞大』에서는 ‘ㅇ’의 유형(2)와 유형(3)이 함께 나타나는데 비하여, 『飜譯朴通事』에서는 전반적으로 격음의 이중 표기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두 문헌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여씨향약언해』(1517), 『정속언해』(1518), 『이륜행실도』(1518)에서도 한편으로는 『飜譯老乞大』와 비슷한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두 문헌과의 달리 나타나는 부분도 존재한다.

- (5) 잡피여늘(二倫初,3a), 잡피(二倫初,6a), 놉피(二倫初,19a), 김피(二倫初,48a), 잡포려(正俗,2a), 잡프리오(正俗,17a), 급피(正俗,20a)
- (6) 받툃(呂鄉諺,04b), 곶툃(呂鄉諺,19a), 받티미오(呂鄉諺,34b), 달티(二倫初,4a 5회), 곶티(二倫初,13a), 받티(二倫初,16a), 흘티(二倫初,29b), 곶트니(正俗,3b), 받툃(正俗,22b 3회), 받티(正俗,23b)

(7) 족키(二倫初,29a), 디키여(正俗,12b)⁷⁾

『여씨향약언해』(1517), 『정속언해』(1518), 『이륜행실도』(1518)에서는 ‘ㄹ’의 유형(1)과 유형(2)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점에서는 『翻譯老乞大』와 유사하지만, 유형(3)이 나타나지 않는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ㅈ’이 유형(1)로만 나타나 『翻譯老乞大』나 『翻譯朴通事』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ㅌ’의 유형(1)과 유형(2)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翻譯老乞大』와 차이점을 보인다.

『翻譯老乞大』부터 『이륜행실도』까지 나타나는 공통점은 ‘ㅈ’이 유형(1)로만 표기된다는 것이다. (1)에서처럼 15세기 문헌에서 일부 나타나고 16세기의 다른 문헌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 빈도는 그리 많지 않다.

(8) 낫빚출(속삼孝,3a), 낫추위(속삼孝,3a), 낫출(個, 운역,4a 2회), 번갯빚치(선가,63a)⁸⁾

이처럼 ‘ㅈ’의 유형(2)은 16세기 초기 문헌임에도 불구하고 15세기 문헌과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는 ‘ㅈ’의 이중 표기가 다른 격음에 비하여 늦게 적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학언해』(1588)를 보면, ‘좨(從)’의 활용형 ‘조차(小學1,5a), 조츠며(小學1,7a)’ 등과 ‘비출(小學1,2b), ㄹ초(小學3,20b), 놀비출(小學6,103a)’ 등의 유형(1)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유형(2)로 나타난다.

(9) 갓츠로(小學1:3b), ㄹ뭇출(小學2:47a), ㄹ곳출(小學6:102b), ㄹ빚체(小學4:12a, 5회), ㄹ빚출(小學4:17a, 2회), ㄹ빚치(小學6:72b, 3회), ㄹ빚출(小學2:4a, 19회), ㄹ빚치(小學3:12a), ㄹ치(小學3:20b, 2회), ㄹ출(小學2:52b, 3

7) ‘디키-’는 15세기에서는 대부분 ‘디회-’로 표기되었다. ‘디키리이다(석보9:21b), 디키여(육조中:76b)’처럼 유형(1)도 보이지만, 이는 소수의 용례이다. 이들은 유형(1)에서 유형(3)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유형(3)에서 유형(2)으로 바뀐 것으로 분석된다.

8) ‘ㅈ’의 유형(2)이 나타나는 문헌은 『속삼강행실도』(1514), 『본문운역이해방』(1542), 『선가귀감언해』(1579)이다. 이외에 『번역소학』(1518), 『소학언해』(1588), 『논어언해』(1590)에서도 발견된다.

회), 낫치(小學2:15a, 2회), 밋츠리오(小學5:16a), 빗체(小學4:16b), 빗츨(小學4:2b, 3회), 빗치(小學2:9b, 3회), 빗츠로(小學6:25b), 빗츨(小學5:27b, 5회), 슷치고(小學6:59a), 슷츠리(小學5:68a), 슷츠촌(小學6:14a), 쯏츨디니(小學5:36a) // 곤초와(小學4:8a, 3회), 날날치(小學5:094b, 2회), 뉘운츠며(小學5:9a), 놀츠로(小學5:80b), 놀츨(小學5:73a), 민처(小學5:50a, 3회), 민츠리니(小學2:35b), 민츠면(小學5:10b, 2회), 민츨이라(小學2:23a), 밑차든(小學5:35b), 밑초더(小學6:4a), 밑츠셔든(小學2:60b), 밑츨애(小學6:17b), 슷밑차(小學6:13a), 진츨(小學4:43b)

이들은 특이하게도, ‘ㅅ+ㅈ’뿐만 아니라 ‘ㄷ+ㅈ’으로도 나타나고 있어, 음성형 [tʰ]에 대응되는 표기를 보여준다(신성철 2004). 이러한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격음의 이중 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논의에서는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단지, 근대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얻은 연구 성과물을 중세국어의 이중 표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러나 언어는 항상 변화 과정에 있으므로, 중세국어의 언어 현상과 근대국어의 언어 현상은 다를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해당 자료의 정밀한 검토 없이 다른 시대의 자료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른 언어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그 연구 성과가 많은 노력과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것이라 할지라도, 연구 시기와 연구 대상이 다르다면, 또한 분석 방법과 해석 방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다른 시대의 자료에 기존의 연구 성과물을 반영함에 있어서 최소한 자료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2. 기존 논의와 문제점

격음의 이중 표기를 해석하려는 논의로는 곽충구(1980), 홍운표(1986), 오종갑(1988), 김주필(1990), 김중진(1999) 등을 들 수 있다. 곽충구(1980), 홍운표(1986), 오종갑(1988), 김중진(1999)에서는 근대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근대국어에 나타나는 격음의 이중 표기를 해석하려는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김주필(1990)에서는 15세기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폐쇄음과 관련된 표기 형태와 음운 현상을 설명하려는 일반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

로 2.1.의 중세국어에 나타난 격음의 이중 표기는 근대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곽충구(1980), 홍운표(1986), 오종갑(1988), 김중진(1999)보다는 김주필(1990)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음성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근대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격음의 이중 표기 연구 성과물도 상당하므로, 이들 연구 성과물로 중세국어에 나타난 격음의 이중 표기를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곽충구(1980:15~17)에서는 유형(1)은 중세 국어의 표기법을 계승한 음소적 표기이며, 유형(2)은 선행 음절말에 표기된 ‘ㅅ, ㅆ’ 등은 어간을 의식하고 미파음을 표기한 것이며, 후행 음절의 ‘ㅌ, ㅊ, ㅍ’ 등은 실제 발음을 반영한 것이라 하면서, 미파음에 대해서는 면을 바꿔 음성적으로는 폐쇄음을 발음할 때 생기는 폐쇄지속음을 표기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형(3)에 대해서는 격음을 ‘ㄱ, ㄷ, ㅂ, ㅈ’와 ‘ㅎ’의 결합으로 인식한 재음소화(rephonemicization)에 바탕을 둔 표기라고 해석하였는데, 이후의 논의는 이러한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운표(1986:129)에서는 선행 음절은 어간을, 후행 음절은 어간말음을 표시하는 표기이며, 선행 음절말의 ‘ㄷ, ㅅ, ㅆ’은 미파음 표시로서 ‘ㅌ, ㅊ, ㅍ’ 등의 폐쇄음을 발음할 때 나타나는 폐쇄지속음을 표시하는 표기로 설명하여,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으며, 오종갑(1988:112)에서는 폐쇄음의 조음 과정이 ① 폐쇄, ② 폐쇄지속, ③ 개방의 3단계를 가지는데, 두 번째 과정인 지속의 단계를 음절 경계로 인식하면서 유형(2)의 표기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여, 곽충구(1980)의 음성적인 설명 부분을 받아들여 정밀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곽충구(1980)의 논의 이래로, 유형(2)의 원인으로 폐쇄음의 음성적 특징인 폐쇄지속음을 받아들여 논의를 이끌어가면서도, 폐쇄지속음의 음성적 특징을 밝혀내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논의에서 일정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적용하면서 다분히 추상적인 설명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 논의는 근대국어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유형(2)의 원리가 중세국어의 해당 용례에도 적용되는지 검토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ㅅ+ㅌ’의 ‘ㅅ’이 어떤 음성형을 가지느냐에 따라 유형(2)의 적합성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근대국어에서는 ‘ㅅ’이 [t̚]로 실현되었지만, 중세국어에서 보이는 ‘ㅅ+ㅌ’의 ‘ㅅ’이 어떤 음성형으로 실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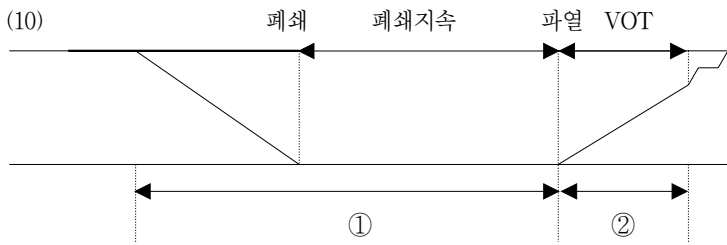
는지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논의 중 하나인, ‘ㅅ’의 음가를 그대로 살린 [s]인지, 또는 ‘ㄷ’과 동일한 [tʰ]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유형(3)의 원리로 설명된 재음소화(rephonemicization)도 간과할 수 없다. 재음소화(rephonemicization)의 필요성을 Harris 등의 미국 구조주의 학자들이 주장한바, 재음소화란 ‘매우 제한된 분포를 가진 음소들의 분포를 조정하는 절차를 가리키는 것’이며, ‘어떤 음을 두 요소로 쪼개어 이미 그 언어에 존재하는 다른 음운에 귀속시켜 이루어진다.’(이기문 외, 1984:87~88) 곽충구(1980:16)의 재음소화(rephonemicization)가 하나의 음운으로 표기될 수 있을 법한 음성을 두 개의 음운이 연결된 것으로 분석하는 것을 재음소화라고 한다면 이는 재음소화가 적용되는 배경과 그 절차를 무시하고 오로지 현상만을 가져온 것이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여러 논의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유형(3)을 미국 구조주의에서 주장한 재음소화의 원개념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2.2)와 (2.3)에서 예로든 ‘딛’은 ‘딛ㅎ’으로 재음소화되어야 할 것이며, 격조사 ‘과’와의 결합에서는 ‘ㅎ+ㄱ=ㄱ’이 반영된 ‘딛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헌에서 나타나는 용례는 시기를 불문하고 ‘딛과(飜老上:11b 6회)’로만 나타난다.

또한 재음소화의 절차가 아닌 그 현상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유형(3)과 연관된 격음화와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 재음소화에 격음화의 한쪽 방향인 ‘ㄱ, ㄷ, ㄲ, ㄷ=ㄱ, ㄷ, ㄷ, ㄷ+ㅎ’의 대응 관계만을 적용하고 있는데, 격음화는 ‘ㄱ, ㄷ, ㄲ, ㄷ=ㄱ, ㄷ, ㄷ, ㄷ+ㅎ’뿐만 아니라 ‘ㄱ, ㄷ, ㄲ, ㄷ=ㅎ+ㄱ, ㄷ, ㄷ, ㄷ’를 포함한 ‘ㄱ, ㄷ, ㄲ, ㄷ=ㅎ%ㄱ, ㄷ, ㄷ, ㄷ’를 가리키는 것으로, 유형(3)의 재음소화와 격음화를 대응시키는 것은 다분히 자의적이라 하겠다. 특히, 유형(3)이 재음소화적 표기라면, 곽충구(1980:16)에 제시된 ‘빚’에는 ‘ㄷ’을 표기상으로 ‘ㅅ’과 ‘ㅎ’으로, 음성적으로 [tʰ]와 [h]로 분석한다고 하여 ‘ㄷ’이 나올 수 없게 된다(김주필, 1990:463).

한편, 김주필(1990:463~5)에서는 격음의 이중 표기가 어간이 포함된 형태소 경계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법적으로는 어간 의식에 기인하며, 음성적으로는 폐쇄음의 음성적 특징인 폐쇄, 폐쇄지속이 선행 음절의 받침에 표시된 것이 유형(2)과 유형(3)이라고 해석하였다. 달리 말하자면, 폐쇄음의

조음 특성에 대한 실험 결과에서 폐쇄된 기류를 파열하고 나서 후행하는 모음을 조음하기 위한 Voicing이 시작되는 순간까지의 무성의 시간 길이(VOT)가 폐쇄음의 구별에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폐쇄, 폐쇄지속을 선행 음절의 받침으로 인식하고, ‘무성의 시간 길이(VOT)’를 후행 음절의 격음자나 aspirate 또는 [h]로 인식한 것이 각각 격음의 유형(2)와 유형(3)이라고 해석하였다.



유형(1)은 폐쇄에서 파열의 순간까지 하나의 격음자(①+②=ㄱ, ㅋ, ㆁ, ㆅ)로 표기한 것이고, 유형(2)은 폐쇄와 지속 부분을 앞 음절의 받침으로 표기(①=ㄱ, ㆁ, ㄷ, ㅂ, ㅅ)하고, 파열의 순간부터 상대의 진동이 이루어지는 무성의 시간대를 격음자로 표기(②=ㄱ, ㅋ, ㆁ, ㆅ)한 것이다. 유형(3)은 파열까지 격음의 선행 받침(①=ㄱ, ㆁ, ㄷ, ㅂ, ㅅ)으로, 파열 이후 무성의 시간대까지를 ‘ㅎ’으로 표기(②=ㅎ)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폐쇄음의 조음 특성을 실험한 결과를 보면, 폐쇄음이 격음과 경음이 폐쇄지속시간으로 평음과 구별되며, 격음과 경음은 VOT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주필 1990:460).

(11) 폐쇄지속시간

음소	ㅂ, ㅍ, ㅃ	ㄷ, ㅌ, ㄲ	ㄱ, ㅋ, ㆁ
시간	10 26 27	11 36 49	11 32 43

※ 단위는 msec.

폐쇄지속시간은 (11)에서 보듯이 격음이나 경음의 폐쇄지속시간이 평음보다 상당히 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①의 인식으로 연결되고,

그리하여 격음의 이중 표기 등이 나타나는 음성적 특징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폐쇄음의 음성적 특징을 분석해 내어 시대를 불문하고 폐쇄음과 관련된 어 나타나는 표기 형태와 음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중세국어에 나타난 격음의 이중 표기와 근대국어에 나타난 격음의 이중 표기가 동시에 설명될 것으로 보이지만, 폐쇄음의 음성적 특성만으로 중세국어에 나타난 격음의 이중 표기를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격음의 이중 표기를 폐쇄지속시간과 VOT로 해석하는 논의는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ㅅ+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난점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중세국어에서는 ‘ㅅ’이 음절말에서도 [s]라고 분석된다면, ‘ㅈ’을 폐쇄와 폐쇄지속시간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s]는 그 음성적 성격으로 마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격음 ‘ㅈ’에서 조음방법과 조음위치가 각기 달리 적용되는 것은 ‘ㅈ’이 지닌 파찰음으로서의 음성적 특성에 기인한다. 파찰음은 폐쇄음처럼 폐쇄되는 폐쇄성을 가지지만 파열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마찰음처럼 마찰을 일으키는 마찰성도 가지고 있는, 폐쇄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지닌 자음이기 때문이다. 마찰성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폐쇄성이 적용되어 폐쇄와 폐쇄지속시간의 음성적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면 ‘ㄷ’을 음성적으로는 미파음 [tʰ]로, 표기상으로는 ‘ㅅ’으로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s]라면 폐쇄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와 폐쇄지속시간을 [s]라고 결부시킬 수 없게 된다. [s]는 파열음이 아니라 마찰음이기 때문에 폐쇄와 폐쇄지속시간을 음성적 특성으로 가지지 않는다.

다른 문제점은 유형(3)을 폐쇄와 폐쇄지속시간을 동음계열의 평자음자로 표기하고, 폐쇄음의 음성적 특징인 파열과 무성의 시간대인 VOT을 ‘ㅎ[h]’로 표기한 것으로 본다면, 격음 ‘ㄱ, ㄷ, ㄱ’에서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하지만, 파찰음 ‘ㅈ’은 유형(3)인 ‘ㅅ+ㅎ’의 ‘ㅎ’을 (10)의 파열과 VOT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파찰음은 파열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마찰음처럼 마찰을 일으키는 마찰성을 음성적 특성으로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마찰음의 특징인 긴 마찰 구간이 ‘ㅎ’으로 할당되는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파찰음 ‘ㅈ’은 그 음성적 특징으로 인하여 파

열과 무성의 시간대인 VOT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ㅈ’의 유형(3)에서 ‘ㄷ’을 ‘ㅎ’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어 격음 ‘ㅈ’에 대한 적합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더욱이 ‘ㅈ’의 유형(3)에서, ‘ㄷ’은 음성적으로는 미파음 [t̚], 표기상으로는 ‘ㅈ’으로 분석되어, [t̚]와 [h]의 결합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ㅈ’이 아니라 ‘ㅈ’에 대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폐쇄음의 음성적 특성이 ‘ㅈ’의 유형(3)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것인지 정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3. 중세국어의 이중 표기

격음의 이중 표기는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표기 형태가 아니다. 유형(2)는 15세기 문헌인 『月印釋譜』(1459)와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1467)에서도 발견된다. ‘끝테(몽산:10b)’, ‘갑똥디니(월석23:98a)’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각각 용언 어간 ‘값-(報)’에 어미 ‘-웁’이 결합하거나, 체언 ‘끝(末)’에 격조사 ‘에’가 결합한 ‘값+-웁’과 ‘끝+에’로 형태 분석이 된다. 그러므로 각각의 ‘ㅈ’과 ‘ㅊ’을 선행 음절의 받침에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를 하나 덧붙인 표기한 유형(2) ‘ㄷ+ㅈ’, ‘ㅈ+ㅊ’의 용례인 것이다. 그렇다면 유형(2)의 발생 시기는 근대국어어가 아니라 15세기 중엽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런데, ‘ㅈ, ㅊ’의 유형(2)인 ‘ㄷ+ㅈ’, ‘ㅈ+ㅊ’의 ‘ㄷ, ㅈ’은 중세국어에 이미 미파음 [t̚]와 [p̚]로 실현되어 선행 음절의 받침에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를 하나 덧붙인 형태로 정의하거나 (10)의 음성적 특징으로 설명하는 데 어려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ㅈ(ㄷ)+ㅈ’의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ㅈ’의 유형(2)도 다른 격음처럼 15세기부터 그 용례가 확인되며, 16세기 문헌에서도 꾸준히 발견된다. 더욱이 『소학언해』(1588)에서는 유형(1)이 소수의 용례로 전락할 만큼 대폭적인 증가가 나타난다.

- (12) 1) 겹츠로(表, 구방下:16b), 꺾추려(止, 구방下:96a)
 2) 늦빛츄(속삼孝,3a), 늦추위(속삼孝,3a), 낫츄(個, 온역,4a 2회), 번갯빛치(선가,63a)

(12.1)은 15세기 문헌에 나타난 용례이고, (12.2)는 16세기 문헌에 나타난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들은 분명히 ‘ㅈ’의 유형(2)에 속하는 용례이지만, 문

제는 '선행 음절의 받침에 동일 계열의 평자음자를 하나 덧붙인 형태'라는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우선, 『朴通事諺解』(1677)의 '빗출(朴通下:45b)'에 격음의 이중 표기에 대한 정의를 적용한다면, 격음 'ㄷ'이 폐쇄음처럼 폐쇄되는 폐쇄성과 파열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마찰음처럼 마찰을 일으키는 마찰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음성적 특성으로 인하여, 폐쇄성은 선행 음절의 받침으로, 마찰성을 격음자로 표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폐쇄성을 나타내는 평자음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음성적으로는 조음위치만이 동일한 미파음 [ɿ]으로, 표기상으로는 'ㅅ'으로 분석한 것이다.⁹⁾

그럼, 근대국어와 달리 중세국어에 나타난 유형(2)는 어떠한 음성적 특성을 보이고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중세국어의, 특히 15세기의 국어의 음절말 'ㅅ'이 음절말 'ㄷ'과 구별 표기되어 있어, 음절말 'ㅅ'의 음가를 밝히려는 논의부터 살필 필요가 있다.

15세기 국어의 음절말 'ㅅ'과 'ㄷ'에 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견해로 분류된다. 첫 번째 분류는 음절말 'ㅅ'과 'ㄷ'이 각기 구별 표기된 것은 대립적인 음운 실현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문법 의식이나 체계의 대립이 반영된 표기로 간주한 견해이다.¹⁰⁾ 두 번째 분류는 이전의 견해를 바꾸면서 제시된 것으로, 음절말 'ㅅ'과 'ㄷ'은 음성 실현이 달라 표기가 구별 표기된 것으로 설명한 견해이다.¹¹⁾ 15세기 국어의 표기의 일반 원칙에 입각하여 'ㅅ'과 'ㄷ'이 일관되게 구별 표기되고, 음절말 'ㄷ'은 'ㄴ' 앞에서 비음화된 표기를 보이지만, 'ㅅ'은 그렇지 않다는 등의 몇 가지 특징을 바탕으로 제기되었다. 세 번째 분류는 음

9) 그러나 이 문헌이 간행된 17세기 중엽의 'ㄷ'이 구개음 [tʃ]로 실현되었고, 또한 음절말에서 7중성 체계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구개음의 평자음자를 선행 음절의 받침에 덧붙인 다음에 중화 규칙과 7중성 체계가 적용되어, 표기상으로는 'ㅅ', 음성적으로 [ɿ]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어려울 듯하다. 왜냐하면 구개음 계열의 평자음자인 'ㅅ'을 받침에 덧붙이고, 중화 규칙과 7중성 체계를 적용한다면 표기상으로는 'ㅅ', 음성적으로 [ɿ]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음절말에 'ㅅ'을 설정하는 것은 중성 체계와 상이한 결과가 된다.

10) 이기문(1959/1978:34~5), (1953:7, 1958:183), 지춘수(1964, 1986:48~54), 이인자(1984:21), 이근수(1986:56), 이은경(1986:13~4), 이익섭(1987, 1992:311~3) 등도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11) 이기문(1961:108), 허웅(1965:381)에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국어 음운사 논의에서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이 견해를 따르고 있다.

절말 ‘ㅅ’이 15세기에 이미 ‘ㄷ’으로 중화된다는 주장으로, 음절말에서 ‘ㅅ’으로 표기된 ‘ㅅ, ㅿ’은 ‘ㄷ’으로 중화된 경우에 속하며, 그리하여 15세기에 이미 음절말 ‘ㅅ’이 중화의 과정에 놓인 것으로 설명한 견해이다.¹²⁾

우선, 첫 번째와 세 번째 견해는 ‘ㅅ, ㅿ’과 관련된 ‘ㅅ’이 미파음 [t̚]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견해는 ‘ㅿ’의 유형(2)의 ‘ㅅ+ㅿ’이 각각 [t̚]와 [c̚]에 대응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바, 격음 ‘ㅿ’이 파찰음이라는 음성적 특징을 반영한 [t̚]+[c̚]가 표기된 것이라는 자연스러운 설명이 가능하다. 파찰음은 폐쇄음처럼 폐쇄되는 폐쇄성과 마찰음처럼 마찰을 일으키는 마찰성을 함께 지니고 있는데, 선행하는 음성적 특징은 폐쇄성이므로, (10)의 폐쇄와 폐쇄지속, 그리고 파열까지의 음성적 특징을 선행 음절의 받침에 덧붙인 ‘ㅅ’으로 표기한 것이 유형(2)의 ‘ㅅ+ㅿ’인 것이다.

두 번째 견해는 ‘ㅅ+ㅿ’이 각각 [s]와 [c̚]에 대응된다는 것이다. 격음 ‘ㅿ’과 상관관계에 있는 평음은 ‘ㅅ’이므로 ‘ㅿ’의 유형(2)는 ‘ㅅ+ㅿ’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중세국어에는 음절말에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허용하는 8중성 체계이므로, ‘ㅿ’을 ‘ㅅ’으로 표기하였지만, 음성적으로는 [s]에 대응하는 것이 유형(2)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15세기 국어에서는 종성의 ‘ㅅ, ㅿ’이 ‘ㅅ’으로 중화되어 음절말에 나타날 수 없으므로(이기문 1972a, 송철의 1987:343), 유형(2)의 표기 형태에 대한 설명은 일련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세국어에 음절말 ‘ㅿ’의 음가를 [s]라 한다면(이기문:1972a,b, 허웅:1965,1975), (10)의 분석처럼 폐쇄음의 음성적 특징을 폐쇄, 폐쇄지속시간과 파열, VOT로 나누어, 폐쇄와 폐쇄지속시간을 ‘ㅿ’이라 할 수 없게 된다. 앞장에 언급한 격음의 이중 표기에 대한 정의와 (10)의 분석처럼 폐쇄음의 음성적 특징을 두 번째 견해에 대입하여 살펴본다면 격음의 이중 표기에 대한 정의와 폐쇄음의 음성적 특징, 그 어느 쪽도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첫 번째와 세 번째 견해는 비록 격음의 이중 표기에 대한 정의에서 나타난 동일계열의 평자음자가 조음위치가 같은 자음이라는 설명과 함께, (10)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견해가 격음의 이중 표기를 설명할 수 있는

12) 김주필(1988:214~5), 이병운(1991/2000:287~301), 육효창(1997:68~92) 등에서 ‘ㅅ, ㅿ’이 먼저 ‘ㄷ’으로 중화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9)에 제시된 『소학언해』의 용례는 ‘ㅈ’의 유형(2)에서 ‘ㅅ’이 미파음 [tʰ]로 실현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ㅈ’의 유형(2)가 ‘ㅅ+ㅈ’뿐만 아니라 ‘ㄷ+ㅈ’으로 나타나는 것은 ‘ㅅ’이 미파음 [tʰ]로 실현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용례가 하나가 아니라 ‘ㅅ+ㅈ’의 경우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음은, 그 세력이 매우 커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ㅈ’의 유형(2)는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 항상 [tʰ][c]에 대응된 것으로 이해되는바,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중세국어에 나타난 유형(2)인 ‘ㅅ+ㅈ’의 ‘ㅅ’이 어떤 음성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 가지 견해 중에서 ‘ㅈ, ㅈ’과 ‘ㅅ+ㅈ’에서 먼저 ‘ㄷ’과 중화한 것으로 분석한 세 번째 견해를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리하여 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 나타나는 유형(2)의 ‘ㅅ’은 항상 [tʰ]로 분석된다. 그리하여 파찰음의 음성적 특징으로 인하여 격음 ‘ㅈ’이 (10)의 폐쇄와 폐쇄지속시간만을 지녔을지라도 폐쇄성과 폐쇄지속시간을 [tʰ]에 할당하고, 파열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마찰음처럼 마찰을 일으키는 과정을 [c]로 표기한 것이 유형(2)인 것이다.

2.4. 격음 ‘ㅈ’의 유형(3)

기존의 논의에서 표기상으로는 ‘ㅅ’과 ‘ㅎ’으로, 음성적으로 [tʰ]와 [h]로 분석한 것을 ‘ㅈ’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국어의 격음화에서는 그 산출물로 ‘ㅈ’를 생산할 뿐이지, 결코 ‘ㅈ’을 생산하지 않는다. 유형(3)의 ‘ㄱ, ㄷ, ㅅ, ㅂ’과 ‘ㅎ’이 각각 ‘ㄱ, ㄷ, ㅈ, ㅍ’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ㄱ, ㄷ, ㅅ, ㅂ’이 공통적으로 평음이면서 각각 연구개음, 치경음, 구개음, 양순음이어야 한다. ‘ㄱ, ㄷ, ㅂ’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만, ‘ㅅ’는 [tʰ]로 실현되기 때문에 ‘ㅎ’과 결합하면 ‘ㅈ’이 아니라 ‘ㅈ’에 대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격음 ‘ㅈ’의 유형(3)은 실제로 ‘ㅈ’의 유형(3)이 아닌 것으로 분석될 수도 있을 듯하다.

또한 (10)에 분석된 폐쇄음의 음성적 특징을 격음 ‘ㄱ, ㄷ, ㅍ’에 적용한다면, 유형(3)의 선행자음을 폐쇄와 폐쇄지속시간을 표기하는 동음계열의 평자음자에 대응하고, ‘ㅎ[h]’을 파열과 무성의 시간대인 VOT을 표시하는 표기라고 하는 설명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파찰음 ‘ㅈ’의 유형(3) ‘ㅅ+ㅎ’에서 ‘ㅅ’을

폐쇄와 폐쇄지속시간을 표기하는 동음계열의 평자음자를 표기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ㅎ’을 (10)의 파열과 VOT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파찰음은 파열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마찰음처럼 마찰을 일으키는 마찰성을 음성적 특성으로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마찰음의 특징인 긴 마찰 구간이 ‘ㅎ’으로 할당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까닭인지 ‘ㅈ’의 유형(3) ‘ㅈ+ㅎ’의 용례는 18세기의 일부 문헌에서만 나타난다.

- (13) 빗히(光, 伍倫4:16a), 빗히로다(伍倫8:18a), 낫낫히(箇箇, 伍倫8:36a, 11회), 구렁빗헤(朴新2:02a), 금빗히(朴新3:50a), 짓빗히(蒙類補,31b), 빗히(明義卷首上,21b), 낫낫히(京畿民02a), 고티로(表, 譯語補51b), 고티로만(隣語3:6a), 갓히셔(皮, 無冤錄1:26a), 고티로(無冤錄1:26a), 고티(無冤錄3:70b), 빗히(老乞重下:15b, 2회), 빗히(老乞重下:23b), 柳靑빗히(老乞重下:26b), 은빗히(老乞重下:48a), 흑녹빗히(老乞重下:48a)

(13)에서 보듯이 격음 ‘ㅈ’의 유형(3)은 18세기, 그것도 특정 부류의 문헌에서만 발견된다. 유형(3)이 나타나는 문헌들은 『오륜전비언해』(1721), 『박통사신석언해』(1765), 『역어유해보』(1775), 『명의록언해』(1777), 『유경괴민인륜음』(1783), 『인어대방』(1790), 『몽어유해』(1790), 『증수무원록언해』(1792), 『중간노걸대언해』(1795)이며, 이들 중 『명의록언해』(1777), 『유경괴민인륜음』(1783), 『증수무원록언해』(1792)를 빼면 나머지 문헌들은 <역서류> 문헌에 해당한다. 더욱이 『증수무원록언해』이 <법의학서(法醫學書)>로써 특정 사회적 계층과 관련된 문헌이다. 그러므로 ‘ㅈ’의 유형(3)은 18세기 문헌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 관계된 문헌에서만 나타난, 사회적 부류별로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¹³⁾

13) 김주필(2005)에서 18세기 중기와 후기의 역서류 문헌인 『박통사신석언해』와 『중간노걸대언해』, 왕실 문헌인 영조의 『어제』·『경세문답』과 정조의 『윤음』을 대상으로 구개음화의 예들을 검토한 결과, 구개음화는 역서류 문헌에서 51.65%와 96.92%가, 왕실 문헌에서 8.66%와 88.90%가 반영되어, 음운변화가 사회 계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김주필 2005:50~51). 이는 18세기 문헌 중 특정 문헌 즉, 역서류 문헌이 왕실 문헌보다 구개음화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ㅈ’의 유형(3)이 나타나는 가장 이른 문헌은 『오윤전비언해』(1721)이다. 이들 문헌에 나타난 용례에 사용된 어휘는 ‘빛히, 빛히로다, 낫낫히’에서 보듯이 ‘빛(光)’과 ‘낫낫이(<낫나치)’가 전부이다. 또한 ‘빛히, 빛히로다, 낫낫히’은 각각 ‘빛+이’, ‘빛+이+로다’, ‘낫+낫+이’로 분석되는데, 주격조사 ‘이’나 서술격조사 ‘이다’, 부사과생접미사 ‘-이’와 각각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구개음화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빛히’에 나타난 ‘ㅈ+ㅎ’은 음성적으로 각각 [tʰ]와 [h]로 분석되므로, 이들은 ‘빛(光)’에 대응되지 않고 ‘빛’에 대응된다. 앞서의 ‘빛히, 빛히로다, 낫낫히’도 음성적 결합에서는 ‘비티, 비티로다, 낫나티’에 대응되는데, 15세기의 ‘빛’, ‘낫나치’과 대응하기 위해서는 구개음화가 적용되어야 15세기의 어형을 회복하게 된다.

‘빛’의 경우에는 ‘빛히, 빛히로다’뿐만 아니라 ‘빛헤, 빛히’가 보이는데, 그 음성형이 ‘비테’와 ‘비티’로 실현되어, 15세기의 ‘비체, 비치’와는 달리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재구조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빛’이 ‘빛’으로 형태가 바뀌는 부분을 음운론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구개음화 관련된 부분이다. 중세국어의 어형과 비교하면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에 의한 어형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빛히, 낫낫히’가 ‘ㅈ’과 ‘ㅎ’이 결합한 형태는 ‘비티, 낫나티’가 되는데, 이 형태에 구개음화 규칙이 적용되어야 15세기의 ‘비치, 낫나치’와 대응하게 된다. 그런데 15세기의 형태인 ‘비치, 낫나치’를 입력부로 하고 결합형인 ‘비티, 낫나티’를 출력부로 둔다면 이때에 적용되는 음운현상은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이 된다. 이처럼 모음 ‘ㅣ’나 반모음 ‘ㅣ[y]’ 앞에서 ‘ㅈ’, ‘ㅈ’이 ‘ㄷ’, ‘ㄷ’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이라 하는데, ‘ㄷ’, ‘ㄷ’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y]’의 앞에서 ‘ㅈ’,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와 함께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주필 1994, 2005:31).

(13)의 용례들은 구개음화 환경에서 나타나는 ‘ㅈ→ㄷ’ 변화는 과도교정에 해당하지만 ‘빛헤, 빛히’의 결합형인 ‘비테, 비티’는 중세국어의 ‘비체, 비치’에서 ‘비테, 비티’로 바뀌는 바에 대해서는 음운론적인 요인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주격조사 ‘이’나 서술격조사 ‘이다’, 부사과생접미사 ‘-이’에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이 적용되어, ‘비티, 낫나티’를 만들고, ‘ㄷ’을 음성적으로 [tʰ]와 [h]로 분석하여, 표기상으로는 ‘ㅈ’과 ‘ㅎ’으로 표기한 것이다.

『오륜전비언해』(1721)의 ‘빛히, 빛히로다, 낫낫히’는 각각 15·6세기에는 ‘비치, 비치로다, 낫나치’로 나타나던 어휘들로서,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이 적용되면서 각각 ‘비티, 비티로다, 낫낫(나)티’로 나타난다.

- (14) 1) 뽁비티(杜重5,47a), 비티(杜重16,34b 10회), ㄴ비티(杜重16,48a), ㄱ읏비티로디(杜重25,25b)
- 2) 비티고(照, 朴通中,42b 2회), 비틴(朴通中,42b)
- 3) 빗티(闡義1,51a 5회), ㄴ빗티(闡義4,42a), 빗티(種德中,36a 3회), ㄴ빗티(種德下,64a 2회)
- 4) 낫낫티(種德下,62b), 낫낫티(無冤錄1,27b)(無冤錄1,66b)

(14.1)은 16세기 문헌 중 『중간두시언해』(1632)에서 나타난 과도 교정된 용례이며, (14.2)는 ‘빛(光)’은 아니지만, ‘ㅈ’이 연철되어 과도 교정된 『박통사언해』(1677)에 나타난 용례를 보인 것이다. (14.3)은 『천의소감언해』(1756)과 『종덕신편언해』(1758)에 나타난 과도 교정된 용례이며, (14.4)는 『종덕신편언해』(1758)와 『중수무원론언해』(1792)에서 ‘낫나치’의 과도 교정된 용례를 보인 것이다. ‘빛’의 ‘ㅈ’이 ‘ㅌ’으로 과도교정된 용례는 (14.1-3)의 경상도 방언에 반영된 17세기의 『중간두시언해』(1632)와 (13)의 용례와 비슷한 시기의 문헌인 『천의소감언해』(1756), 『종덕신편언해』(1758), 『중수무원론언해』(1792)에서 보듯이 구개음화 환경에서만 발생하고 있다. 구개음화 환경이 아닌 용례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14.4)의 부사파생접미사 ‘-이’와 결합형이 그 자체로 구개음화 환경이므로, 구개음화 환경이 아닌 여타의 환경이 개재할 여지가 전혀 없다.

(13)의 ‘빛히, 빛히로다, 낫낫히’와 (14)의 용례들은 구개음화 환경에서 발생한 과도교정에 의한 변화가 주격조사 ‘이’나 서술격조사 ‘이다’, 부사파생접미사 ‘-이’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13)의 ‘빛히, 빗해, 것호로, 것히, 갖혀서, 견호로만’ 등은 구개음화 환경에서 발생한 신형을 음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비음운론적 요인으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13)의 ‘빛’과 ‘낫낫이(<낫나치)’가 격음 ‘ㅈ’을 지닌 어휘이지만 ‘ㅈ+ㅎ’은 ‘ㅈ’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ㅌ’에 대응하는 것이며, (13)의 예들은 ‘ㅈ’의 유형(3)이라기보다는 ‘ㅌ’의 유형(3)을 표기한 용례라 할 것이다.

이는 ‘낫낫히’는 현대국어에서 ‘날날이’에 대응되고, ‘것흐로’의 ‘것ㅎ’은 ‘겉(表)’에 대응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¹⁴⁾. ‘낫낫히’나 ‘것흐로’의 ‘낫나치’나 ‘겉’이 각각 현대국어에서 ‘날날이’와 ‘겉’으로 그 형태가 바뀐 것은 (13)의 ‘ㅅ+ㅎ’을 ‘ㅈ’이 아니라 ‘ㅌ’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낫낫티’와 ‘비티’에 적용된 ‘ㅌ→ㅌ’의 과도교정도 단순한 표기의 문제나 음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위에서 진행된, 즉 음소의 층위에서 진행된 변화임을 알려주는 것이다(김주필 1994:70). (13)의 용례들은 과도교정에 의한 음소 층위의 변화 과정과 다른 조사와의 결합으로 신형이 확산되는 재구조화가 적용된 용례이며, 이러한 까닭에, 구개음화 환경의 용례 이외에는 비음운론적 요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ㅈ’의 유형(3)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¹⁵⁾ 기존의 논의는 이러한 오류를 그대로 범하였는데, 이는 (13)의 용례들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 중세국어에서 ‘빛, 겉, 갓, 낫나치’이었다는 발생학적 측면에서, 유형(3)을 ‘ㅌ=ㅅ+ㅎ’의 대응으로 처리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13)을 기존의 논의처럼 격음화로 설명하였을 때는 전혀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나, (10)에 분석된 폐쇄음의 폐쇄, 폐쇄지속시간과 과열, VOT에 따른 설명에서도 적합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ㅌ=ㅅ+ㅎ’의 도식을 그대로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14) ‘갓히셔’는 현대국어의 ‘갓’에 대응되지만, 현대국어에서는 단일어로 잘 쓰이지 않고, ‘살갓’과 같은 합성명사로만 나타난다.

15) ‘빛(光)’은 현대국어에서도 ‘빛’이다. 즉 과도교정을 겪었음에도 ‘ㅌ’으로 변화를 겪지 않고 ‘ㅈ’을 유지한 것이다. ‘빛’도 과도교정으로 ‘ㅌ’으로 어형의 변화를 겪었음을 보여주는 용례가 19세기 문헌에서 발견된다. 『스민필지』(1889~1891년간)에서 ‘히ㅅ밧홀(필지, 4 12회), 들ㅅ밧홀(스민, 5 2회), 밧홀(스민, 45 3회), 눈ㅅ밧흔(스민, 11 4회), 털ㅅ밧흔(스민, 11), 살ㅅ밧흔(스민, 11), 물ㅅ밧흔(스민, 98), 밧흔(스민, 153), 자쥬ㅅ밧히니라(스민, 153)’가 나타나고 있어, 과도교정이 음소층위에 진행되었음을 보여 준다. 구개음화 환경에서는 ‘자쥬ㅅ밧히니라(스민, 153)’의 예를 포함하여 ‘ㅈ’을 유지한 ‘밧치(스민, 5), 살ㅅ밧치(스민, 11 4회), 구리ㅅ밧치며(스민, 11)’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을 ‘ㅈ’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구개음화를 다시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듯하다. 더욱이 중세국어에는 ‘꽃(花)’이었던 ‘꽃’이 ‘꽃홀(스민, 30), 꽃히(스민, 72), 꽃흐로(스민, 99), 꽃히(스민, 160)’도 나타나고 있어, 과도교정에 의한 ‘ㅌ→ㅌ’ 변화가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3. 마무리

특정 자료를 대상으로 얻은 연구 성과물을 다른 자료에 무비판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듯하다. 그러나 언어는 항상 변화 과정에 놓여 있고, 또한 환경 요인에 따라 변화 과정이 달리 반영되기도 한다.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물은 그 특정 시기의 자료에만 적합한 결과물인 것이며 다른 시기의 자료에는 적합한 것인지는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알 수 있다. 어느 한쪽의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해당 자료의 정밀한 검토 없이 다른 시대의 자료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른 언어 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좋은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연구 성과가 많은 노력과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것이라 할지라도, 연구 시기와 연구 대상이 다르다면, 분석 방법과 해석 방법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격음의 이중 표기가 근대국어의 특징적 표기라는 인식이 굳어져, 중세국어에 나타나는 격음의 이중 표기에 대해서도 무비판적으로 근대국어의 연구 결과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격음의 이중 표기에 대한 기왕에 축적된 논의에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았으며, 몇몇 부분에서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

우선, 근대국어의 ‘ㅅ+ㅈ’의 ‘ㅅ’은 [t̚]로 실현되었지만, 중세국어에서 나타나는 ‘ㅅ+ㅈ’의 ‘ㅅ’이 [s]라는 견해와 [t̚]라는 견해에 따라 그 음성 실현형이 달라진다. 그러나 폐쇄음의 음성적 특성인 ‘폐쇄, 폐쇄지속시간’과 ‘과열, VOT’을 격음의 이중 표기의 준거로 사용한다면 ‘ㅅ’이 ‘폐쇄, 폐쇄지속시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t̚]로 실현되어야 한다. 실제로 파찰음 ‘ㅈ’은 폐쇄음과 마찰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음성적 특징으로 인하여 선행 자음 ‘ㅅ’은 폐쇄미파음 [t̚]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소학언해』(1588)에 나타나는 ‘ㅈ+ㅈ’이 ‘ㅅ+ㅈ’과 대등한 빈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미파음 [t̚]는 상당한 세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앞에 제시한 두 가지 견해보다는 ‘ㅈ, ㅈ, 사이 ㅅ’이 15세기부터 [t̚]으로 실현되었다는 견해와 상당히 합치하고 있어, 중세국어의 ‘ㅅ+ㅈ’을 [t̚]+[c]로 분석하였다.

‘ㅈ=ㅅ+ㅎ’의 도식에 대응하는 용례가 18세기 일부 문헌에서 발견된다. 가장 이른 문헌은 『오륜전비언해』(1721)으로, ‘빋히, 빋히로다, 낫낫히’ 등이 나

타나는데, 주격조사 ‘이’나 서술격조사 ‘이다’, 부사과생접미사 ‘-이’와 각각 결합한 구개음화 환경을 보여 준다. 15세기의 형태인 ‘비치, 낫나치’를 입력부에 두고, 결합형인 ‘비티, 낫나티’를 출력부에 둔다면 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의 적용으로 (13)의 용례를 생성하게 된다. 그러나 (13)의 ‘빗히, 빗헤, 것흐로, 것히, 갖히서, 견흐로만’ 등처럼 구개음화 환경이 아닌 용례들은 비음운론적 요인으로 인한 재구조화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13)의 ‘빗’과 ‘낫나티(<낫나치)’가 비록 15세기에는 격음 ‘ㅈ’을 지닌 어휘였지만, (13)에 나타난 ‘ㅈ+ㅎ’은 ‘ㅈ’이 아닌 ‘ㅌ’에 대응하는 것이며, (13)의 예 또한 ‘ㅌ’의 유형(3)을 표기한 용례인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격음의 이중 표기를 유형별로 수정하고 그 음성 실현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1)	유형(2)	유형(3)
[ㄷ]	ㄷ[c]	ㅈ(ㄷ)[tʰ]+ㄷ[c]	-
[ㅋ]	ㅋ[k]	ㄱ[kʰ]+ㅋ[k]	ㄱ[kʰ]+ㅎ[h]
[ㅌ]	ㅌ[t]	ㄷ(ㅌ)[tʰ]+ㅌ[t]	ㄷ(ㅌ)[tʰ]+ㅎ[h]
[ㅍ]	ㅍ[p]	ㅂ[pʰ]+ㅍ[p]	ㅂ[pʰ]+ㅎ[h]

〈참고문헌〉

- 곽충구(1980), 18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43, 국어연구회.
- 곽충구(1984),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마찰음화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1, 국어국문학회.
- 김주필(1990), 국어 폐쇄음의 음성적 특징과 음운현상, 『기곡 강신항 화갑 기념 국어학 논문집』, 태학사.
- 김주필(1994), 17·8세기 국어의 구개음화와 관련 음운현상에 대한 통시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주필(2004), 15세기 국어표기의 단위와 특성, 『정신문화연구』 27-2.
- 김주필(2005), 18세기 역서류 문헌과 왕실 문헌의 음운변화, 『어문연구』 126, 어문교육연구회.
- 김중진(1999), 『국어 표기사 연구』, 태학사.
- 신성철(2004), 음절말 ‘ㅅ’과 ‘ㄷ’의 표기 변화에 대한 연구 - 16·17세기 국어를 중심으로 -,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 송 민(1994), 근대국어의 음운론적 인식, 『동양학』 24,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 송철의(1987), 15세기 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음운론적 고찰, 『국어학』 16, 국어학회.
- 오종갑(1988), 『국어 음운의 통시적 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 육효창(1995), 중세국어 음절말에서의 치음의 음가고, 『동악어문논집』 30, 동악어문학회.
- 육효창(1997), 중세국어 치음의 음가에 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이광호(1986), 근대국어 표기법에 나타난 분철 표기의 연구, 『어문학논총』 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 이광호(1995), 후음 ‘ㅇ’과 중세국어 분철표기의 신해석, 『국어사와 차자표기』(소곡 남풍현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이기문(1959), 16세기 국어의 연구, 『문리논집』 4, 고려대 문리과대학(국어학연구선서3, 1978: 탑출판사).
- 이기문(1972a), 『개정 국어사 개설』, 민중서관(1978: 탑출판사).
- 이기문(1972b), 『국어 음운사 연구』, 한국문화연구소(1977: 탑출판사).
- 이기문 외(1984), 『국어음운론』, 학연사.

- 이병운(1991), 15세기 국어 음절말 표기 ‘ㅅ’의 음성적 실현, 『어문교육논집』 11, 부산대(2000: 세종출판사)
- 이병운(2000), 『중세국어의 음절과 표기법 연구』, 세종출판사.
- 이익섭(1987), 음절말 표기 ‘ㅅ’과 ‘ㄷ’의 사적 고찰, 성곡논총18.
- 이익섭(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진호(2004), ‘삿(簾)’에 대한 국어사적 고찰, 『국어학』 43, 국어학회.
- 황문환(2001), 근대 문헌의 ‘ㅅ’ 분절 표기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 교수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홍윤표(1986), 근대국어 표기법 연구, 『민족문화연구』 1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
- Bynon, T.(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역사언어학』, 최전승 옮김(1992), 한신문화사).
- Chomsky, N. & Halle, M.(1968), The sound pattern of English, New York: Harper.
- Milroy, J.(1992), Linguistic Variation and Change, Blackwell, (『언어변이와 변화』, 정영인 외 6인 옮김(1998), 태학사).
- Schane, Sanford. A.(1973), Generative Phonology, Englewood Cliffs,N.J: Prentive- Hall.
- Trubetzkoy, N.S.(1939), Gründzuge der Phonologie, (『음운학 원론』, 한문희 옮김(1991), 민음사).

【Abstracts】

Double writings of the Aspirated consonants and their phonetic features

Shin, Seong-cheol

In this study, I understand that the double writings of the aspirated consonants have the same root, but they went through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writing types consecutively.

This study focused on phonological phenomena, the recognition of correspondence, and the phonetic features under my assumption that each phonetic form has three writing forms.

I founded that the ‘ㅅ’ of ‘ㅅ+ㅅ’ in the type(2) was realized [tʰ] not only in the modern Korean but also in the middle age Korean. Moreover, I founded that ‘ㅅ, ㅅ, auxiliary ㅅ(or sai si-ot)’ were realized [tʰ] from 15 century, and I also analyzed that ‘ㅅ+ㅅ’ is composed of two phonetic values [tʰ] and [cʰ]. In contrast, the ‘ㅅ=ㅅ+ㅎ’ type appears at ‘Oryunjeonbieonhae(1721)’.

I understand that the examples such as ‘빛히, 빛히로다, 낮낫히’ are combined with the subjective particle ‘이’, predicative particle ‘이다’, adverb derived suffix ‘-이’ respectively and situated in the palatalization environment at the same time.

In my view, above three examples were influenced by the over-correction of the palatalization. On the other hand, I found that the examples ‘빗히, 빗헤, 것흐로, 것히, 갖히셔, 견흐로만’ were influenced by the re-structuralization in relation to the non-phonological reasons. Therefore, with the above reasons, I assume that ‘ㄸ+ㅎ’, the type(3) of ‘ㅈ’, is not corresponding to ‘ㅈ’, but ‘ㅊ’.

In short, it would be possible to correct the combined writings by three types and suggest their phonetic reality as follows:

	Type(1)	Type(2)	Type(3)
[ㅈ]	ㅈ[c]	ㄸ(ㄷ)[tʰ]+ㅈ[c]	-
[ㅋ]	ㅋ[k]	ㄱ[kʰ]+ㅋ[k]	ㄱ[kʰ]+ㅎ[h]
[ㅊ]	ㅊ[tʰ]	ㄷ(ㄸ)[tʰ]+ㅊ[tʰ]	ㄷ(ㄸ)[tʰ]+ㅎ[h]
[ㅍ]	ㅍ[p]	ㅂ[pʰ]+ㅍ[p]	ㅂ[pʰ]+ㅎ[h]

Key-word : aspirated consonant, the double writing, the their phonetic feature, the palatalization, the over-correction, the re-structuralization.

이 논문은 2008년 5월 25일에 투고되었으며, 2008년 7월 8일에 심사 완료 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